

“남친 있는데 이상형한테 고백 받았어요”

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'네이트 판'에 '남친 있는 상황에서 이상형한테 고백 받는다면'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.

사연의 주인공 A 씨는 4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후반의 여성이다. 그녀는 “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으니 조언들 많것 부탁드립니다.”라며 글을 시작했다.

A 씨가 어렸을 때에는 얼굴만 보고 연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외모를 제일 먼저 봤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게 됐다. 하지만, 최근 한 잘생긴 남자가 계속 아른거린다.

그는 A 씨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외모 자체가 A 씨의 이상형 자체를 빼다 박았다. 처음에는 그냥 딱 '잘생겼다'라는 생각만 들었고 당연히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.

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무척 친절해서 A 씨도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.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지났고 나이가 동갑이고 그냥 친구처럼 일상 대화 정도 편하게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.

그러다 최근 A 씨에게 “쉬는 날에 밥 한번 먹을 수 있냐?”라고 물어봤다. A 씨는 자신이 남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 진짜 친구의 감정으로 웃도 편하게 입고 밥 한번같이 먹게 됐다.

이후 퇴근하고 통화도 몇 번 하게 됐는데, 그는 어느 날 “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.”라며 “혹시라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이 전혀 없거나 헤어지게 된다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혼자 가 봤을 때 나한테 와 달라!”라고 고백했다.



A 씨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(이 부분은 지금 남자친구도 알고 있음)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나으면서 A 씨를 힘들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만나 온 사람이었다.

A 씨는 “그냥 제가 왜 여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자주 흔들리는 건지 제가 생각해봐도 이상하지만 그냥 저 정신 차리라고 해도 좋으니 어떤 말이라도 해주세요.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제 마음이 반응하고 설레는 건 남자친구가 아닌 저 사람인데 저 어떡하나요 진짜.”라며 조언을 구했다.

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“남친 있는 거 알면서도 작업 들어 간 거 보면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은데”, “마음이 떠났는데 남친을 계속 만나는 게 오히려 기망이죠”, “4년간 잘해줬는데 고작 외모 잘생긴 가게 손님에게 흔들릴 정도면 언제든 떠나갈 사람이었네”, “뭐래는 거야... 남친이 아니라 남편 있어도 흔들려”, “마음이 가는 것을 어찌 막습니까?” 등의 반응을 보였다.

사진=shutterstock

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**MART** 옆

HOWARD DRUGS

· 깨끗한 시설 · 저렴한 가격 · 친절하 서비스

당뇨/ 고혈압/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

세리토스, 실비치, 싸이프레스, 롱비치, 하와이언 가든, 다우니

30년 병원 임상경험
*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



약사 노혜경
Pharm.D.
Board Certified
Pharmacotherapy
Specialist



(Del Amo Bl. + Pioneer Bl.)

하워드 약국

562-866-6011

20141 Pioneer Blvd. Lakewood, CA 92715

JSK 건축, 플러밍



물
새
요
:

Lic #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

제이킴

714.249.5469

용문루

GRAND OPENING

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
Eat Good, Feel Good



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

파티룸 10~50명 수용 가능

* waiter, waitress 구합니다.*

용문루 T.626.363.4961
www.yongmoonlu.com

월,수,목,금 11:30am ~ 3:00pm 토,일 11:30am ~ 9:00pm
4:30pm ~ 9:00pm

19240 Colima Rd. Rowland Heights, CA 91748